불교 출판정보 전산화 '발등의 불'

출판정보통신 출범 '전자책방시대' 예고

불서 DB작업 '부다피아' '불교자료실' 등 2곳뿐

인터넷·PC통신통해 양서찾기 이용자 급증

독자들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신간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책을 통신으로 신청해 구입하는 전자책방의 대중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9월1일 우리나라 출판정보의 전산화를 맡게될 (주)한국출판정보통신(대표 강경중)이 정식출범함으로써 출판유통현대화의 토대인 출판정보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 출판사-도매업체-서점-독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VAN(광역정보통신망)사업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늦기전에 불교계의 자체적인 불교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양질의 불서정보 제공 등 새로운 정보화 환경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출판정보통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제공이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출판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점도 자체적인 불서정보 전산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본지의 인터넷 '부다피아'와 불교방송이 천리안·하이텔상의 '불교자료실'을 통해 불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보바다인 인터넷상의 불교관련 가상(전자)도서관과 전자책방의 숫자 및 질에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다피아내의 사이버책방 '여시아문'의 경우 베스트셀러·신간·추천도서·소식지 등을 제공,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방 여시아문이 소장하고 있는 1만여종 상당의 '전체불서목록'을 아직 입력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5천여종의 불교도서목록을 PC통신에 제공하고 있지만 천리안 등의 패킷(Packet)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불서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불서초록'을 게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교방송의 불교정보연구소 박기태 선임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곧 부다피아에 상응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부다피아가 불교전자책방의 역할을, 불교정보연구소가 가상불교도서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사정과는 달리 인터넷상의 불교전자책방, 불교가상도서관 등의 운영은 활발하다. '일렉트릭 라이브러리(http://www.elibrary.com/)' 등 도서·잡지·지도·방송원고 등을 내용까지 소개하는 전자도서관내의 불교관련 정보는 물론 150여개 이상의 불교사이트 대부분이 불서정보를 제공, 판매까지 하고 있다. 특히 불교전문 책방·도서관도 수십여개에 달한다.

김재경 기자

■불교전자책방
- Wsdom Books(http://www.demon.co.uk/wisdom/)
- Snow Lion Publications(http://www.well.com/user/snowlion/)
- Clear Light Books(http://www.clearlight.com/).

■불교가상도서관
- Buddhismm on Web(http://www.inet.co.th/cyberclub/bow/)
-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http://coombs.anu.edu.au/)
- Center for Buddhist Studies(http://ccbs.ntu.edu.tw/CBS-bin/userfrom/)

출판 화제

최인호씨 수필집 '사랑아…' 펴내

가톨릭신자로 불교소설쓴 이유등 고백

◇최인호씨

"나는 '경허(鏡虛)'라는 두레박을 타고 불교의 깊은 우물로 내려갔다. 2천년간 이어온 우리의 불교정신이 우리 민족의 영혼임을 깨달았다."

경허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베스트셀러 〈길없는 길〉의 작가 최인호씨(51)가 수필집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여백 刊)를 펴냈다.

지난 87년 가톨릭에 귀의한 뒤, 불교 소설가 정찬주씨를 통해 불교와 경허스님을 알게되고 드디어 〈길없는 길〉을 펴낸 최씨는 〈사랑아…〉의 '불교소설을 쓴 까닭'·'내 인생의 주인공은'이란 난을 통해 이같은 사연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또 '육신이란 무엇인가'란 글에서 정신의 메마름을, '더 깊은 청산'에서는 맨발과 빈손의 수도자와 청산에 숨은 불교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힌다.

과학사상 가을호 '카프라 특별대담' 실어

계간 〈과학사상〉(발행인 이성범)은 가을호에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등의 저서로 '신과학운동'의 물결을 일으킨 세계적인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박사와의 특별대담 '동양의 지혜가 미래를 밝힌다'를 게재했다.

서강대 김영덕교수(물리학)와의 대담에서 카프라박사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관련, 현대 인지과학의 시스템식 접근을 예로 들면서 "마음이라는 현상은 자연계 전체에 퍼져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생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화제의 책

버마불교의 이해 — 이은구 지음

초기불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버마(미얀마)의 불교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미얀마 양곤의국어대 객원교수를 역임한 이은구씨(한국외대 강사)가 쓴 〈버마 불교의 이해〉는 버마불교는 물론 남방·상좌부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 연구서로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버마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현실감있게 소개한 이 책은 인도 초기불교의 전파로부터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통일왕국이자 버마에서 상좌부불교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한 버강시대(11세기 중엽)를 중심으로 버강시대 이전과 이후의 불교를 역사적으로 조명했다. 또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에 있어서의 종교적 사상과 실천의 차이, 버마불교의 사회적 지위와 주요 불교유적지 등을 사진을 곁들이며 설명했다.

〈세창 8천원〉

남방·상좌부불교 역사적 조명 '충실'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 이동주 지음

우리 전통회화의 아름다움과 미술양식의 흐름을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학술원회원인 동주(東洲) 이용희씨가 지은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은 고분벽화부터 고려불화, 조선시대 풍속화까지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주요 흐름을 섭렵한다.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주요작가의 작품세계를 화려한 원색도판과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동양회화 감상의 기초지식, 고구려 벽화,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시대, 가장 비중을 많이 둔 다양한 작품세계의 조선시대 회화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려불화의 세계', '조선초기의 불화'편에서는 관무량수경십육관변상도 등 각 불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왕가와 불화' '수수께끼의 화인 이자실' 등 생소한 자료도 소개한다.

〈시공사 2만원〉

벽화서 풍속화까지 전통회화 섭렵

새로나온 책…

▲불교윤리학논집(법혜스님 편역)=동국대교수인 법혜스님이 편역한 이 책은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의 윤리학을 시대별 지리별로 정리,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윤리가 어떠해야 할 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원로인 平川彰 등 일본학자 6명의 논문과 故 고익진교수의 논문 '불교윤리와 한국사회'가 실려 있다. 〈동국역경원 1만5천원〉

▲숨어사는 즐거움(허균 저·김원우 엮음)=백월(白月) 거사 허균의 여러 저서들 가운데 은둔사상의 실천적 국면을 조리있게 펀찬한 〈한정록(閑情錄)〉은 그의 철저한 아웃사이더 정신의 산물이다. 옛 선비들의 한적한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교·도교적인 취향에 맞는 은둔과 풍류 이야기들을 가려 뽑은 독서 노트.

〈솔 5천8백원〉

▲사후생(퀴블러 로스 저)=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더욱 진지해 진다. 지난 10년동안 전세계에서 2만5천 가지 죽음의 사례를 연구한 의학박사이자 죽음학의 대가인 저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대 최준식교수 옮김.

〈대화 4천5백원〉

▲북한산 가는 길(박창규 저)=북한산에 출입한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인물은 원효다. 원효봉과 원효암, 원효가 참선수도 했다는 덕암사 등 북한산에는 원효가 창건했다는 절이 많다. 저자 박창규씨(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가 산행길과 북한산에 얽힌 일화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평화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영원한 자유의 길	강 정 진	경 서 원
5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기도	일 타	효 림
8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분별은 버리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독송회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유마경

중부인도 바이살리성의 불자요 부호(富豪)였다는 유마힐의 설법은 그옛날 속세에 살면서 가르침을 지키려던 이땅의 불자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깨달음을 주는 영감의 샘물이었다.

신라의 김유신은 열 일곱살때 석굴에 들어가 하늘의 도움을 비는데 '난승(難勝)'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비법을 가르쳐줬다고 했다(삼국사기). 난승이란 〈유마경〉에 보이는 '난승여래'라는 부처님이다. 유마힐의 설법을 담은 〈유마경〉이 삼국시대 재가신도들 사이에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마힐은 돈과 권세와 명성을 위해 뜀박질하는 오늘날 속세의 인간들에게 더 절실한 감동과 영감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는 우선 겉보기에 평범한 '중생'의 선량한 이웃이다.

그는 재물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보시하며, 계율을 범한 것같이 보이면서도 작은 죄에도 강한 두려움을 가지며, 성난 것같으면서도 항상 너그럽게 인내한다.

정 경 희 (언론인)

"正法지키는 유마힐의 모습 참불자 생활 일깨워주고…"

그만큼 유마힐은 스스로 불자인 척하지 않는 겸허한 불자였다. "세간의 서적에 밝으면서도 불법을 바라고, 사(邪)된 모습을 지닌 채 바른 가르침(正法)에 들고, 세속을 버리지 않고도 바른 행위(威儀法)를 지키며 능히 세속을 따른다"고 했다.

그에게는 도를 닦는 도량(道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청순한 마음(直心)과 보시와 사랑(慈)이 모두 도량"이라고 했다. 세속이 바로 도량이다.

그래서 그는 "널리 세간에 노닐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정치와 법률에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救護)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 한몸의 열반'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승(大乘)'의 법과 맞닥뜨리게 된다. 또 '널리 세간에 노닐면서 사람들을 구호'했던 유마힐은 그 옛날 인도땅 바이샬리성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도시 후미진 어느 곳에 있어야 될 불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때묻지 않은 이름' 유마힐은 '영원한 현대인'의 이름이다.

게다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리고 미륵을 비롯해서 마지막 문수사리에 이르기까지 다섯 보살과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의 설법은 다른 경전에서 보기드문 활기가 넘쳐 시원하다. 또 최고급 문학작품만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이 뛰어나다.

"먹는 것은 오직 단 이슬(甘露)뿐, 해탈(解脫)만을 맛봐 마시고 맑은 마음에 목욕하고 계율을 향(香)삼아 바르며…"

탐욕에 조바심치는 속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이런 향기높은 구절들이 〈유마힐소설경(所說經)〉을 보석처럼 꿰뚫고 있다. 각별히 불경을 이해하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 두텁지 않은 분량이다.

이 속인(俗人)의 시대에 번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유마경〉의 재발견을 경험하는 감동이 있었으면 싶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미국수입완제품"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회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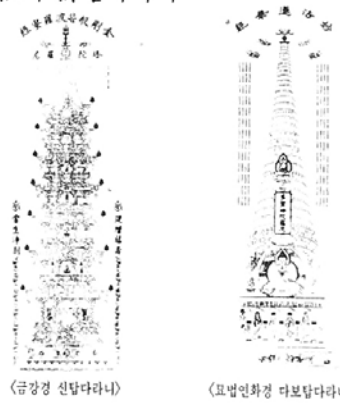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